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3년 8월 25일(금)
..(음력 7월 10일)
Пятница
25 августа 2023 г.
№ 33 (12050)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지난 19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사할린주 한인협회 주최로 광복절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에 앞서 '영예(슬라와)'광장에서 헌화식이 있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행정부 홍보실 제공)

단신

사할린주한인협회 회장으로 박순옥 선출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18일(금)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주한인협회 임시 대표자 선거회의가 소집되었다. 회의에서 사할린주한인협회 회장으로 박순옥 전 주한인협회 회장, 부회장으로는 이 세르게이 사할린한인청년회 회장이 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인 회장 선거는 새로 채택된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다. 또한 회의에서 새로운 임원을 선출했다.

연어잡이가 사할린에서 적도 인근으로

사할린에서 연어잡이 조업이 적도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다. 지역 수산부 정보에 따르면 현재 어획량은 어획 권장량의 43%를 달성했다. 2021년 '제재' 지표에 상당히 앞서 조업을 한 가운데 우리 수산업자들은 붉은 연어 3만1천 톤을 어획했다. 그중 송어를 3만 톤, 케타(연어) 2,200톤, 네르크(홍연어)는 1,200톤, 키주츠(은연어)는 497,000톤 이상을 어획했다.

존경하는 석탄산업 종사자 여러분!

광부의 날을 맞아 축하를 드립니다!

19세기 사할린의 풍부한 석탄 매장지 발견은 전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중요한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사할린에서의 석탄 채취는 다



른 대규모 지역의 탄전보다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항구, 무역 화물선, 군함에 사할린의 석탄이 공급되었고, 항만개발과 지역에 주민 정착, 새로운 산업과 제조업의 탄생을 촉진시켰습니다. 현재 사할린의 광산업자들은 이웃한 극동 연방지구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들에 석탄을 공급하고 있으며, 대규모 투자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부라는 직업은 언제나 가장 힘든 직종 중 하나입니다. 지금도 고도의 전문성과 용기와 인고가 필요한 일입니다. 광부들의 이러한 수고 덕에 지역 주민들의 집에 전기와 난방이 공급되고 있으며, 새로운 제조업이 창출되고, 수출 잠재력이 개발되며, 국가의 경제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사할린주 석탄산업 종사자 및 전문가들의 노고와 일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성공과 강건함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광부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발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

주지사, 러시아 연방 안전이사회 사무장 회의에 참석

러시아 연방 안전이사회 사무총장 니콜라이 파투르세브와 극동 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 유리 트루트네브 주재로 마가단에서 사무장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 극동 지역 지도자들과 연방 부처장차관들이 실제 국가 안보 문제의 현안을 논의한 가운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정치적-군사적 상황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검토하고, 국제적 상황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가적, 사회적 안보 문제에 주의를 기울였다. 세부적으로 논의된 점은 극동 지역의 교통 및 에너지 안보와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따른 조치들이다. 특히 전통적 정신적-윤리적 가치 강화와 역사적 기억 수호를 위한 추가 대책을 강조했다. 러시아 안보이사회 니콜라이 파투르세브 사무총장은 나치 독일에 대한 승리는 러시아 역사에서나 모든 인류 역사에 대단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일본 군국주의를 최종적으로 패퇴시킨 러시아의 기여를 상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매해 진행되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피해자 추모 행사에서 일본 지도자들은 미국의 눈치를 보며, 1945년에 일본의 평화로운 도시들에 원폭 투하가 미국의 지시로 발생했다는 것을 기억하길 꺼린다. 미국인들은 원폭투하를 자국 내에서 공개적으로 밝히고, 심지어 자랑스위하기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공개적으로 러시아 측이 핵위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

다. 오래 전부터 알려진 바와 같이 워싱턴과 런던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세계 대변동을 조장하고, 전쟁을 벌이며,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사태처럼 타인의 손으로 이를 실행하고 있다."라고 사무총장이 말했다.

"북대서양 동맹 국가들은 러시아의 경제와 문화와 전통을 깨뜨리려 하고, 자기들의 서구적 행동양식과 인간관계의 원칙을 강요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기에 교육과 애국활동의 수준은 우리 국가와 전 세계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우리를 적대시하는 국가들은 우리의 학생들과 대학생들을 포함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파괴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선전해왔고, 계속하고 있다."고 트루트네브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가 말했다.

사할린의 학교들에서는 역사를 왜곡하려는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향토역사를 교과 과목으로 채택했다. 교과서는 사할린 국립대 교수들과 사할린주 향토 박물관의 연구자들이 제작했다. 3권으로 된 교과서는 6학년-7학년용, 8학년-9학년용, 10학년용으로 되어 있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의 동포 영웅들에 대해 더 많이 알도록 <영웅들의 책상> 기획이 실시되고 있다. 사할린에는 98개의 기념 책상과 4개의 기념 현판이 개설했다. 아나와 시의 1호 학교는 특수군사작전에서 전사한 제니스 플로트니코프 중위의 이름을 따서 명칭하게 되었다.

주 향토 박물관의 홈페이지에는 1945년 8월 일본 군국주의로부터 사할린을 해방시킨 남 사할린과 쿠릴 해방에 대한 별도의 구간이 있다. 여기 문서들은 이투르프, 쿠나쉬르, 쿠릴의 소열도들에 대한 일본 측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확증하고 있다.

"특수군사작전이 시작된 지 1년 후에 러시아 연방 대통령 행정부의 지원으로 전국 애국가요 축제가 사할린에서 개최됐다. 예술가들은 전장의 장병들에게 바치는 노래를 만들어 공연하여 6월12일 갈라 콘서트가 '빠르비(1)'방송을 통해 방영됐다.

현재 사할린 지역에서는 '준비하세요!'라는 전투 스포츠 훈련에 따른 기획을 전개했다. 이 활동은 추진력을 얻어 여성들도 참가하고 있으며, 이미 2천여 명의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이 이 기획에 동참했다."고 발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말했다.

러시아 연방 안전이사회 회의에서는 국민 단결 강화와 국가적 정보 정치 시행을 위한 조직 활동의 권고안이 작성됐다. 또한 서방으로부터 파괴적으로 정보화된 심리적 작용의 영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청년들의 자기실현을 위한 추가 기회를 창출하고, 교육기관에서 계몽활동 진행, 주민들의 문화적 수준 향상에 따른 행사 등 일련의 지침도 내려졌다.

(주 정부 제공)

새고려신문

2023년 하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3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101루블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편집부)



사할린 한인 대표단, 대한민국 방문

사할린 한인 2세, 3세 권익보호 진전을 위해 현행법 개정사업 활성화 목적으로 사할린 한인 대표단(단장 이채인 사회 활동가, 동포 2세)은 한국을 방문해 8월 21-24일 4일간 바쁜 일정을 가졌다. 대표단은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의 사할린 한인단체 대표 6명으로 구성되었다. 사할린주는 이채인 활동가와 김홍지 전 사할린주한인협회 회장, 모스크바 지역 간 단체 사할린한인회의 김태익 부회장과 박 알렉산드르 변호사, 상트페테르부르크 사할린한인회 김 콘스탄틴 임원, 독립국가연합을 사할린 향우회(카자흐스탄)의 채신자 임원이 대표했다.



재외동포청에서

이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 6월 초에 '사할린동포 문제: 해결방안'이란 주제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진행된 국제실무학회에서 제기한 문제점 해결을 추진하기 위해 방한하여 재외동포청, 대한적십자사, 국회, 한국 국제보건의료재단 등을 찾았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월) 사할린대표단은 안산 고향 마을에서 전국 사할린귀국동포단체 (회장 권경석) 임원들과 만나 힘을 모으기로 했다. 동 단체의 권경석 회장과 임원 몇 명이 사할린 한인단체 대표단과 한국 일정을 함께 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실무학회의 결과물인 공동 청원서는 새고려신문 2023 6월 16호에 게재되었음).

대표단은 재외동포청에서는 최영환 차장과 이상급 외무사무관과 만나 문제를 논의하고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했다. 대표단은 재외동포청 측에 사할린 한인들의 아픔과 우리 동포 지원에 있어 현행법 문제점을 하루 빨리 해결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표단은 사할린 한인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는 이명수 국회의원과 만났다.

이명수 국회의원은 영향력과 경험이 많다는 정치인이다. 만남에서 사할린 한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방안과 우리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인지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들의 관심을 끄는 방법을 모색했다.

대한민국 적십자사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의 회동에서는 대표단은 두 기관에 사할린 한인 지원에 감사를 표시하였고 미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대표단은 이번에 가진 미팅들은 모두 다 효율적으로 진행되었고 이번 방문은 사할린 한인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노력이었다고 하는 의견을 입을 모았다.

대표단은 이번 방문 성사되기 위해 지원과 도움을 배풀어준 상트페테르부르크 사할린한인회 (회장 최영구), <사할린 한인>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 (회장 천영근), 전국사할린귀국동포단체 (회장 권경석)에 감사를 표한다.

모스크바에서 박 알렉산드르

사할린 동포에게 드리는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 2024 모금 시작

KIN(지구촌동포연대)(이하 KIN)는, 사할린 동포들에게 드리는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 2024' 제작을 위한 온라인 모금을 8월 16일(수)부터 시작하였다.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은 사할린 동포들이 기일, 생일, 농사일, 손없는 날 등 일상생활을 음력으로 지내지만, 러시아에서 음력 달력을 구하기 어려워 제작하기 시작했고, 올해로 열한 번째 제작이다. 러시아 달력에 음력과 절기, 한국의 명절 및 국경일을 표기하고, 짧은 러시아어 설명을 넣어 3, 4세 동포들도 전통문화를 알 수 있도록 만든다.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은 한국의 시민들에게 사할린 동포들을 알리기 위한 취지로 온라인 모금으로 제작을 시작하며, 사할린동포와 한국의 시민을 잇는 가교역할을 하는 이 달력은 동포들에게는 무척 반가운 새해 선물이 되고 있다.

온라인 모금 참여

1) 카카오 같이가치(~10월 16일까지)

☞ <https://together.kakao.com/fundraisings/108538>

2) KIN 모금 계좌(같이가치 모금 종료후)

☞ 우리은행. 1006-301-227783. KIN(지구촌동포연대)

계좌입금시 기부금영수증 발급 문의 kin2333@gmail.com.

사할린에 이동 의료팀, 환자 3,000명 이상 진료

이동 의료팀의 노력 덕분에 지역 주민들이 지역 외부로 나가지 않고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올해 5월부터 사할린과 쿠릴 주민 3천100명이 세부과목 전문 의들에게서 진단 및 치료를 받았다. 지난 몇 달간 이동 의료팀의 수가 3팀에서 13팀으로 증가한 가운데 팀에 이비인후과, 피부과, 외과 외에도 세부과목 전문의들이 합류했다.

이동 방문 의료팀들은 매일 진료를 다니고 있으며, 예약은 사전에 이뤄지고, 환자들은 전화 1-300으로 연락해 진료를 예약하고, 주치의의 요청할 수도 있다. 이번 주초에는 내분비 전문의를 포함해 류마티즘, 위장염, 종양 과목의 전문의들로 구성된 이동 의료팀이 흡스크를 찾아가 각 1교대당 20명 이하를 진료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지시로 사할린에는 이동 의료팀이 구성되었다. 일주일 간 이동 의료팀들은 14개 지방자치체를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일정표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변경된다.

이 모 저 모

'사할린의 날개'에서 처음 민속음악 축제인 <레르 신화> 열려

코르사코프 지역의 푸쉬스티 간이 비행장에서 처음으로 <레르 신화> 전자 민속음악 축제가 열렸다. 이 행사는 '2023 사할린의 날개'의 일환으로 8월 18일(금)~19일(토)까지 양일간 개최되었다고 사할린 문화·고문서부가 전했다.

"행사에서는 전자음악 신디사이저의 소리와 풍부한 민속적 요소가 한데 어우러졌다. 여기에서 전통과 현대가 하나로 융합되어 조화를 이루고, 통합과 영감이라는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문화·고문서부가 전했다.

무용 부문에서는 "의흐" 신화 사람들 민속문화 센터의 참가자와 울리아 멜니코와가 공연을 했고, 콘스탄틴 미넨코, 이완 샤야예브, 이사이 아루투냐, 타치야나와 알렉세이 세도브, 파벨 프로호렌코가 민속적 기념행사를 돌이게 했다.

Первый фестиваль этнической музыки «Лер Миф» провели на «Крыльях Сахалина»

Первый фестиваль электронной этнической музыки «Лер Миф» состоялся на аэродроме Пушистый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е.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шло 18-19 августа в рамках «Крылья Сахалина 2023», сообщили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министерстве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обытие собрало в себе синтетические звуки электронной музыки и богатство народных мотивов. Здесь слились воедино традиции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создав неповторимую атмосферу единства и вдохновения», — отметили в ведомстве.

Участники этно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Люди Ых миф» и Юлия Мельникова показали танцевальные номера. Дополнили этнический праздник сеты диджеев Константина Миненко, Ивана Шамаева, Исаия Арутюняна, Татьяны и Алексея Седовых, Павла Прохоренко.

이완 부닌 150주년 기념으로 출간된 '태양의 일격'선집, 사할린에서 선보인다

8월 29일(화) 사할린주 도서관에서 <태양의 일격> 현대 작가들의 산문과 시 모음집 출간 발표회가 개최된다. 사할린주 일반 과학도서관 측에 따르면 이 선집 출간은 러시아 고전 문학과 노벨 문학 수상자인 이완 부닌의 탄생 150주년을 즈음하여 책이 출간됐다고 전했다. '태양의 일격' 선집의 작가들

은 러시아와 해외 작가들 55명이며 그중 24명이 사할린인으로 이들의 작품들은 일찍이 동일한 명칭의 사할린주 문학 콩쿠르에서 우승한 바 있다. '심사위원들은 수상작, 우수작 선정시 사랑을 주제로 한 논란보다는 삶의 욕망이 실질적으로 반영된 것을 선호하여 그 작품들에서는 사본적 개념의 사랑이 아닌 작가의 개인적 경험을 기반으로 한 심적 표현, 그리고 부드러움과 격정, 사람의 마음과 마음 간 감각적인 독특한 관계에 중점을 두었다.'고 선집 서문에 적혀있다.

출간 기념회에서는 선집의 작품들을 작가들이 직접 낭독하고, 선집을 도서관에 증정한다. 행사는 이날 사할린주 일반 과학도서관에서 17시30분에 시작된다.

На Сахалине презентуют сборник «Солнечный удар», выпущенный к 150-летию Ивана Бунина

Презентация сборника стихов и прозы современных писателей «Солнечный удар» состоится 29 август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библиотеке. Выход книги приурочен к 150-летию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классика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и лауреата Нобелевской премии Ивана Бунина,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СахОУНБ.

Авторами сборника «Солнечный удар» стали 55 российских и зарубежных писателей, из них 24 — сахалинцы. Ранее их произведения победили в областном литературном конкурсе с одноименным названием.

«При определении финалистов и победителей жюри отдавало предпочтение не рассуждениям на тему любви, а правдивому художественному отображению житейских страстей, где любовь не умоглядное понятие, а переживание, основанное на личном чувственном опыте авторов, где, помимо нежности и страсти, есть ощущение особой связи между любящими душами», — сказано в аннотации к сборнику.

На презентации прозвучат некоторые произведения из сборника в авторском исполнении, а также будут вручены экземпляры книги.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йдет в СахОУНБ 29 августа, начало в 17:30.

<2023-사할린의 경계>에 660여 명의 익스트림 아마추어 육상인들 모여

<2023-사할린의 경계> 익스트림 육상 경기가 사할린주에서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사할린의 날개> 비행 및 음악 축제 종료일의 일환으로 열렸다고 지역 스포츠부가 전했다.

올해에는 활동적인 생활방식을 선호하는 아마추어 육상

인 663명이 경기에서 자신의 실력을 시험하고자 참가신청을 했다. 경기에 앞서 사할린주 스포츠 장관 아르쎙 포드쉬발로브는 "이 행사는 오래 전부터 사할린 주민들이 좋아하고 있어 이제 우리에게 전통이 되었다. 올해로 이 대회는 8회를 맞이한다. 이렇게 획기적인 참가자 수는 사할린주가 러시아에서 가장 스포츠적 지역임을 확증하고 있다. 이는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통계가 이를 말하고 있다. 참가자 모든 분들에게 행운을 빌며,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트랙을 통과하여 긍정적인 마음을 크게 충전하길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다. 참가 선수들은 5km 구간에 30개의 다양한 난이도의 장애물이 기다리는 코스를 통과해야 했다.

여자 개인전 경기 결과로는 울리야나 도브로볼스카야가 41분 11.3초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그녀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선수로서 5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2위는 아나스타시야 완디셰와가 44분38.4초를 기록, 3위는 다리야 카시마가 46분 38.6초를 기록했다.

남자 개인전에서는 유리 라구니가 30분52.3초로 1위를 차지, 일라스 누갈리에브가 31분31.3초로 2위를 차지, 미하일 아니키예브가 31분 52.9초로 3위를 차지했다. 팀별 경기에서는 '프라이드 팀(Pride team)'이 43분30.0초로 가장 빠르게 결승점에 이르러1위를 차지했다.

"저는 2016년부터 '사할린의 경계'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코스의 결정적인 어려움은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달리는 동안 트랙이 바뀌었고, 더 달릴수록 더욱 흥미로웠습니다."라고 이 팀의 팀장인 곽 알렉산드르가 말했다. 2위로는 45분57.3초를 기록한 '화성에서 온 로커 쥐들'팀이 차지, 3위는49.40.3초를 기록한 '타행성'팀이 차지했다.

Более 660 любителей экстремального бега собрал «Сахалинский рубез-2023»

Экстремальный забег «Сахалинский рубез-2023» прошел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Мероприятие состоялось в рамках финального дня фестиваля авиации и музыки «Крылья Сахалина», сообщили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министерстве спорта

Проверить свои силы в прохождении испытаний в этом году вызвались 663 любителя активного образа жизни.

(8면에 계속)

에코 공원에서 펼쳐진 광복절 행사

지난 19일(토) 광복 78주년 기념행사가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림종환), <사할린 한인>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전영곤), 우글레고르스크 지역 한인단체(회장 강수복)의 공동 주최로 에코 공원(로즈 아그로 농장)에서 개최됐다. 이에 3500여 명이 참가하고 행사 진행에 홈스크, 코르사코브, 아니아, 샤흐쵸르스크, 크라스노고르스크, 토마리, 돌린스크, 네웰스크, 고르노자워드스크, 스미르니흐, 비코브, 위스토크의 사회단체 대표들의 협력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 3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남녀노소 전 세대가 한인을 비롯해 러시아인, 타타르인 등 여러 민족의 사람들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개회식에서 러시아 국가가 울려 퍼진 뒤 행사가 시작되었다. 진행자는 한반도 해방 역사를 전하고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러시아 동포 등이 이날을 어떻게 기념하고 있는지 전했다.

축하 공연에는 주로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 소속 '무궁화'합창단, '매력'무용단을 비롯한 여러 예술단들이 참가해 손님들에게 즐거운 명절 분위기를 한껏 안겨주었다. 방문객들은 특히 러시아어와 한국어로 불러준 노래 '카츄샤', 한국 민요 '아리랑'을 아주 반갑게 들으며 함께 부르기도 했다. 한층 더 흥겨운 분위기를 돋운 것은 강팔연 동포 음악가·가수의 노래였다.

이날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에서는 행사 지원과 협력을 한 회사, 사회단체, 개인 등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는 시상식도 가졌다.

또한 무대에서는 특수군사작전을 위해 홈스크 노인자원봉사자,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 및 우글레고르스크 지역 한인단체 회원들이 만든 100세트의 위장장물을 군대에 전달했다. 사람들은 사할린 동포 추념관도 찾아갔다.

여러 스포츠 경기가 펼쳐진 가운데 특히 체스대회와 씨름대회가 인기를 끌었다. 또한 한식, 우즈베크, 러시아 요리들도 맛볼 수 있었고, 한복 입기 체험실도 열고, 기념사진을 위한 포토존도 인기가 많았다. 주최 측은 1세분들을 위해서 별도의 밥상을 차렸다.

에코 공원인 만큼 경치도 아름다운 장소가 많았고, 동물 조형물도 눈길을 끌었다.

무엇보다 오랫동안 서로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만나 반가이 인사를 나누며, 좋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기뻐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정 리지아 임원, 림종환 회장)
(사진: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제공)



사할린에서 한반도 광복절 기념

지난 19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코스모스 경기장에서 민족 명절인 광복절 기념 행사가 열렸다. 행사에서는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주민 및 방문객들을 위해 '에트노스' 아동예술학교의 학생들과 창작 예술단이 공연을 펼치고, 수공예 활동교실과 민족 경기 씨름대회가 열리고, 한국 요리 시식회가 펼쳐졌다. 개회식은 '에트노스' 학생들로 구성된 북 앙상블의 연주, '토르나도' 스포츠 클럽의 태권도 시범공연으로 시작됐다. 사할린주 제1부지사 세르게이 바이다코브가 주최자와 참가자, 방문객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존경하는 여러분, 사할린 주지사 알레리 리마렌코의 이름으로 모든 사할린 한인들에게 명절을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날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날은 우리의 역사이자, 우리 공동의 승리였고, 지금의 평화로운 삶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세르게이 나드사진 시장은 "한민족의 격변이 지나가 뒤에 남겨지고, 현재 우리가 한국의 문화와 우리 공동의 역사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존경하는 모든 사할린의 모든 주민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이 명절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큰 행복입니다. 지금 한인 디아스포라의 대표들은 민족의 전통과 언어와 민족 예술을 보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방면의 모든 주도적 일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향후 적잖이 흥미로운 공동의 기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사할린에는 약 2만5천여 명의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행사 주최자인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은 축하에서 민족 명절 광복절은 조국 독립의 승리의 기쁨이자 이산가족들에게는 슬픔이라고 강조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 리 드미트리리는 부모님과 아내와 딸과 함께 공원을 찾아왔고, 딸은 무대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다. 그들은 매년 이날을 기념하고 있다고 했다.

"사실 우리에게 이날은 매우 중요한 행사입니다. 어렸을 때 항상 이날을 준비하고 기념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명절은 우리 문화의 일부이며, 전통에 대한 우리의 예로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라고 말했다.

축제 기간 동안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주민들은 민속경기인 씨름과 태권도를 관람하기도 하고, 한식을 맛보며, 한식으로 유명한 비빔밥과 국수를 비롯해 요리 만들기 활동교실에도 참가할 수 있었다. 행사로서 방문객을 위해 민족적 특성을 표현한 포토존이 마련됐고, '사할린 한인' 사진전도 열



렸다. 사할린 국립대 대학생 야나 짜바이는 "우리는 한국어 캘리그래피와 팔찌 매듭, 현대 한국 케이팝(K-pop)에 따른 재밌는 활동교실을 준비했다. 언제나 이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명절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다민족 국가이므로 문화적 소통을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할린주 당국은 민족 문화 보존에 있어 한인 공동체 조직에 도움을 주고 있다. 사할린주는 러시아에서 유일하게 국가 지원으로 한국어 신문이 발간되고, 한국어 방송이 나간다.

한민족의 광복절은 매해 8월15일에 기념하고 있다. 한민족은 40년간 일본제국에 강점되어 폭력과 억압을 체제로 한 잔혹한 일본 군경이 조직됐고, 한국어 사용이 금지되었었다.

1945년 8월 제1 국동전선의 소비에트군 25 부대는 이완 치스차코브의 지휘 아래 만주와 한반도를 해방시켰다.

(주 정부 홍보실)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섬이 되어 보내는 편지 / 허수경

나는 내 섬에서 아주 오래 살았다
그대들은 이제 그대들의 섬으로 들어간다
나의 고독이란 그대들이 없어서 생긴 것은 아니다
다만 나여서 나의 고독이다
그대들의 고독 역시 그러하다
고독은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지만
기필코 우리를 죽이는 살인자인 것은 사실이다
그 섬으로 들어갈 때 그대들이 챙긴 물건은
그 섬으로 들어갈 때 내가 챙긴 물건과 비슷하겠지만
단 하나 다른 것쯤은 있을 것이다
내가 챙긴 사랑의 편지가
그대들이 챙긴 사랑의 편지와 빛이 다른 것
그 차이가 누구는 빛의 차이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세기의 차이다
태양과 그림자의 차이다
이것이 고독이다

섬에서 그대들은 나에게 아무 기쁨도 넣지 않을 것이며
섬에서 나도 역시 그러할 것이다
그래서 섬이 되어 보내는 편지 속에는 눈물이 없다
다만 짙막한 안부 인사만, 이렇게
잘 지내시길,
이 세계의 모든 섬에서
고독에게 악수를 청한 잊혀갈 손이여
별의 창백한 빛이여
"안개 자욱한 섬의 외형이 그려집니다.
저 멀리 보였다 어느새 사라지고 말
그런 섬. 물과 흙 사이에 갇혀 나는 별
이 마중 나와 있으면 좋으련만, 이 시의
뉘앙스로는 어찌 그 섬에 당도하면 다
신 돌아오지 못할 느낌이니 알 수야 없
지요. 안개 낀 풍경이 더욱 고독해 보이
는 이유입니다. 휘이 감돌아 언제든 우
리의 시야, 의식 모두를 지배해 버릴 테니. 무엇이든 신비해보



이는 건 잘나가 맞겠지요. 삶의 이유, 우리는 늘 바로 그 실체를 쫓지만, 일상의 관성에 파묻혀 많은 시간을 휘발 시키곤 하지요. 그러면서도 한편 일상의 어떤 사건을 두고 수많은 원인과 결과를 알고 싶어하지만 여전히 알 길이 없습니다. 알 수 없죠. 길어야 백년의 삶.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지극히 알고 한정적이기 마련일 테니. '에코 프로'가 MSCI에 편입되었는지, 초전도체 관련주는 결국 큰 기대만큼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건지, 대로변 문지마 칼부림 사건은 들불 번지듯 활활 타오를 건지. 우리 대부분은 알다가도 모를 이런 정보에 폭 빠져 있는 건 아닌 건지 모르겠네요.

'또 다른 섬'이라는 단절된 세계를 통해 죽음을 그려낸 시입니다. 이쯤 되니 시인은 이미 그 섬 기슭에 당도해 내릴랑 말랑하는 찰나에 이렇게라도 어떤 메시지를 남기려 했던 건 아니었나, 마음 한 켠이 아련해집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홀로 모든 고민을 짊어진 채, 언젠가 가장 소중했던 사람들과, 어쩌면 자기 자신마저도 뒤로한 채 이별 여행을 떠날 수 밖에 없을 텐데요. 삶의 그 끝자락, 시인의 시선이 오히려 삶의 소중한 추억과 귀한 인연을 떠올리게 합니다. 고독한 시, 영화같은 시, 태양과 그림자의 차이를 두고 한참 고민하게 만든 숙제를 담은 편지, 아니 그런 편지를 담은 시!"

서울에서 허진원 작가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праздновали 78 годовщину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В этом году празднование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от японских милитаристов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ло 19 августа на двух площадках.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одной стала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второй – ЮСМОК с соорганизаторам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я мест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корейцев). Организация праздника на обеих площадках была высокой, собрала много гостей. А представляете, что бы было, если усилия обеих сторон были бы объединены.

Семьями встречали праздник в Эко-парке

19 август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 территории Эко-парка ООО «РОЗ АГРО» прошло мероприятие, посвящённое 78-летию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Оно было организовано и проведено ЮСМОК совместно с МОК ЮС «САХАЛИН-ХАНИН», Углегорской МОК и при содействи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городов и сел Сахалина: Холмск, Корсаков, Анива, Шахтерск, Красногорск, Томари, Долинск, Невельск, Горнозаводск, Смирных, Быков, Восток.

В праздничном мероприятии, которое по праву можно назвать народным гулянием, участвовало более 3 тыс. человек. На территории Эко-парка вместе весело проводили время и пожилые люди, и молодежь, и дети. Можно было наблюдать семьи трех-четырех поколений.

Мероприятие началось с гимна России, участника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Ведущий рассказал несколько слов об истории празднования этого дня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КНДР и всех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России. Всех порадовала концертная программа, подготовленная силами самодеятельных творческих групп ЮСМОК, «Мерёк» и наших партнеров. Зрители активно поддерживали выступающих, подтанцовывая и подпевая. Особо тепло зрители приняли исполнение песни «Катюша»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е. И конечно, народного гимна - песню «Ариран».

Прямо на сцене состоялась церемония передачи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СОО ВООВ «Боевое Братство» очередной сотой партии маскировочных сетей, изготовленную «серебряными волонтерами» гор. Холмска, членами ЮСМОК и УМОК.

Гостям праздника пришлось по душе различные мастер-классы (от плетения маскировочных сетей для СВО до уроков корейской каллиграфии). Не оставили без внимания гостей праздника и давние друзья ЮСМОК. Лучшие игроки Городского шахматного клуба провели одновременный сеанс игры на скорость. Дети и взрослые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пробовали силы в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борьбе ссирым.

На фудкорте праздника гости пробовали блюда корейской, узбекской и русской кухни. А в летнем кафе принимали наших бабушек и дедушек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приглашенных гостей.

В этот день были открыты двери мемо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Посетители могли возложить цветы и поклониться тем, кому не суждено вернуться на родину.



Со сцены звучали слова благодарности спонсорам, активистам ЮСМОК, многим партнерам были вручены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е письма за совместную работу, содействие в подготовке и проведении мероприятия, посвященного 78-летию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Отметили наградами и призами участников спортивных состязаний.

Атмосферу праздника и народного гуляния поддерживал музыкант и певец Петр Кан (Кан Пал Ен).

Неожиданные встречи с давно знакомыми людьми, торжественность мероприятия, попури корейских и российских песен долго не отпускали гостей праздника с танцевальной площадки и территории праздника, оставив самые приятные воспоминания до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Отрадно, что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 отметили хорошую организацию проведения мероприятия. Был организован автобусный трансфер от вокзала до Эко-парка. Техническую поддержку по установке сцены, палаток и места проведения спортивного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ссирым обеспечила МОК ЮС «САХАЛИН-ХАНИН».

Тхэквондо, ссирым,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хне прошли на стадионе Космос

Национальный праздник состоялся на стадионе «Космос»,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Для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выступили воспитанники детской школы искусств «Этнос» и другие творческие коллективы, провели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му искусству, состязания по национальной борьбе ссирым и дегустацию блюд корейской кухни.

Открылся национальный праздник композицией ансамбля барабанщиков «Этнос» и ярким показательным выступлением тхэквондистов из спортивного клуба «Торнадо».

Организаторов, участников и гостей праздника поздравил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главы региона Сергей Байдаков.

– Уважаемые друзья, от имени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поздравляю всех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 праздником! От всей души хочу пожелать вам всего самого доброго. Это наша история, наша общая победа, и она заложила основы нашей сегодняшней мирной жизни! – сказал Сергей Байдаков.

– Большое счастье, что потрясения прошлого для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остались позади, и сегодня мы имеем возможность наслаждаться этим праздником, объединяющим всех южносахалинцев, которые любят, чтят, уважают корейскую культуру и нашу общую историю. Современны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диаспоры стараются сохранить традиции, язык, национальное искусство. Это очень важно. А мы, в свою очередь, будем продолжать поддерживать все инициативы,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это. Впереди нас ждет немало интересных совместных проектов, – отметил мэ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Сейчас на острове проживает около 25 тысяч корейцев. Президент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ак Сун Ок в выступлении подчеркнула, что национальный праздник – это радость победы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страны и горечь для разлученных семей.

Южносахалинец Дмитрий Ли пришел в парк с родителями, женой и дочерями, одна из которых даже выступала на сцене. Семья празднует этот день каждый год.

– Для нас, на самом деле, это очень важное событие. Помню, еще был ребенком, всегда отмечали, всегда готовились. Праздник – это часть нашей культуры, это дань традициям, для нас это важно, – поделился южносахалинец.

Во время торжества южносахалин-



цы могли понаблюдать за спортивными состязаниями в национальной борьбе ссирым и тхэквондо, попробовать блюда корейской кухни и даже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мастер-классах по приготовлению знаменитых бибимпаба, куксы и других блюд. Для гостей мероприятия работали фотозона с национальной атрибутикой и фотовыставка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 Мы подготовили интересные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каллиграфии, плетению браслетов и современной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К-рор. Обычно всегда много желающих в них поучаствовать. Считаю, что такой праздник очень важен, ведь наша страна –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ая, нужно поддерживать культурные связи, – сказала студентка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ниверситета Яна Цабай.

Региональные власти оказывают корейским общественным организациям помощь в сохранении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 единственный регион России, где пр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е выходят материалы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в газете и на телевидении.

Напомним, День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ежегодно отмечается 15 августа. 40 лет Корея находилась под протекторатом Японии, там была создана жесткая военно-полицейская система насилия и угнетения, запрещалось использов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августе 1945 года советская 25-я армия 1-го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ронта под командованием генерал-полковника Ивана Чистякова освободила Манчжурию и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Более 600 кг кимчи приготовят на фестивал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идет активная подготовка к празднованию Дня города. 2 сентября в парке культуры и отдыха им. Ю.А. Гагарина откроется «Фестиваль фестивалей», где с 11:00 до 17:00 будут работать несколько площадок. Самыми «вкусными» из них станут фестивали кимчи и шашлыка,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клонников знаменитого корейского блюда из пекинской капусты ждут на роллердроме. Здесь всем желающим предложат продегустировать и приобрести кимчи, приготовленную по различным рецептам, включая кимчи без острого перца.

«Национальная кухня — это та часть культуры, которая объединяет всех. Это когда в каждой сахалинской семье на одном столе стоят традиционные русские и корейские блюд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для фестиваля мы заготовили 600 кг кимчи, в этом — планируем сделать еще больше», — подчеркнула президент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Оксана Пак.

Помимо дегустации, организаторы готовят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приготовлению кимчи. Дети тоже найдут себе занятие — для них проведут урок по прикладному корейскому искусству и заинтересуют традиционными играми.

Отметим, для посещения мастер-классов необходи-

м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 с 30 августа взять приглашительные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пр. Мира, 83А). Справки по телефону 42-40-87.

Кроме это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команды поваров городских ресторанов и кафе, а также местны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для любителей ароматного шашлыка приготовят это блюдо по традиционным и авторским рецептам. Зона дегустации и торговли расположится в юго-восточной части парка на площадке у Маяка. Все желающие смогут не только насладиться вкусом жареного на костре мяса, но и проголосовать за лучший шашлык и оценить соусы к нему.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Президент РК произвёл перестановки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22 августа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произвёл частичные перестановки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Министром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торговли и энергетики назначен Пан Мун Гю, занимавший должность начальника управления координации политик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Его заменит нынешний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планирования и финансов Пан Ги Сон. Глава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Ким Дэ Ги, сообщив о новых назначениях, отметил, что Пан Мун Гю является экспертом в сфере экономики, который способен решать сложны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задачи. Старший секретарь президента по вопросам экономики и финансов Ким Бён Хван назначен первым заместителем министра планирования и финансов, а вице-мэр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города Сэчжона Ко Ги Дон - заместителем министра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готовит проект бюджета на 2024 год

При формировании бюджета на следующий год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братит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на поддержку уязвимых слоёв общества при одновременном сокращении расходов. Об этом заявил вице-премьер, министр планирования и финансов РК Чху Гён Хо, выступая 23 августа на заседани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политических партий по бюджетным вопросам. Он назвал четыре основных направления в формировании бюджета. Это укрепление соци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рост инвестиций в будущее, создание качественных рабочих мест и обеспечение нормального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истемы. Будет обращено внимание на улучшение условий военной службы, поддержку внёсших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страны, укрепление системы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я стихийным бедствиям и борьбу с новыми видами преступлений. Проект бюджета должен быть направлен в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не позднее первого сентября.

В РК продолжают задержания нелегалов

С 1 июня по 31 июля в РК было выявлено 6.114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находящихся в стране незаконно. Как сообщили 23 августа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юстиции, 5.482 человека депортированы или ожидают депортации. Остальные оштрафованы или находятся под следствием. Оштрафованы 1.290 руководителей компаний, принявших на работу нелегалов. Выявлены 20 брокеров, которые оказывали нелегалам содействие в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е. Пятеро из них заключены под стражу. Помимо этого, 5.476 иностранцев, находящихся в стране незаконно, получили возможность добровольно покинуть РК. Задержаны 15 нелегалов, распространявших и принимавших наркотик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ая активность в РК продолжает снижаться

По данным Банка Кореи, опубликованным 23 августа, индекс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ой активности (BSI) для всех отраслей составил в августе 71 пункт. Это на 3 пункта ниже, чем в предыдущем месяце. Показатель ниже ста пунктов указывает на преобладание пессимистических настроений над оптимистическими. Исследователи обращают внимание на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ую сферу, где за месяц индекс сократился на пять пунктов. Ухудшение настроений, в частности, наблюдается среди изготовителей электронного, видео- и 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в связи с медленными темпами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спроса на полупроводники. Аналогичная ситуация отмечается в производстве первичных металлов. Эксперты отмечают снижение спроса на сталь и ослабление её ценовой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сти. Падение индекса в сфере производства химических веществ и продуктов объясняется относительно медленными темпами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внутреннего спроса в Китае. В непромышленном секторе, в частности, в сфер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научных и технических услуг, строительства и развлечений, индекс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ой активности понизился на один пункт. Это произошло вследствие ослабления внутреннего спроса, нехватки рабочей силы и роста стоимости труда на фоне неопределённ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В Сеуле появятся проездные билеты в метро для туристов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иностранные туристы, посещающие Сеул, смогу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билетами на неограниченное количество поездок в метро в течение определённого времени. Как сообщили 21 августа в Сеульской корпорации обществен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билеты,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е название которых Tota GO, будут рассчитаны на один или три дня. Стоимость однодневного билета составит 5.600 вон (4,17 доллара), а трёхдневного - 11.800 вон (8,80 доллара). Кроме того, в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центрах на некоторых станциях метро станет доступна услуга автоматического синхронного перевода на 13 языков. В ноябре этого года услуга будет введена на станциях «Мёндон», а в начале 2024 года - ещё на четырёх станциях.

(RKI)

Для продвижения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 21 по 24 августа делегац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о главе с общественным деятелем И Че Ын побывала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с целью продвижения инициативы по изменению законов Кореи для улучшения прав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торого и последующих поколений.

В состав делегации вош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наших земляков из самых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Сахалин представляли известные общественные лидеры И Че Ын и Ким Хон Ди. Московское обществ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едставили Ким Тхэ Ик и Пак Александр Денчурович. Интересы наших земляков, проживающих в странах СНГ, представляла Че Син Дя. В работе делегации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Ким Константин Дюньевич, как представитель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менно усилиями этой организации 1 октября 2022 г., а также 3 июня 2023 г.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проведены 1-я и 2-я Международные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ие конференции «Проблем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ерспективы решения», на которой активисты выработали конкретные предложения в пользу корейцев второго и последующих поколений.

Как известно, 5 июня 2023г.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начало работу Агентство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АДЗК). Эта новая организация будет на новом уровне вести работу по поддержке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Сахалинскую делегацию принял заместитель руководителя АДЗК г-н Чой Енг Хан и Второй секретарь г-н Ли Санг Гып. Стороны провели важные и результативные переговоры. Члены делегации донесли до руководства АДЗК чаяния и надежд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 скорое преодоление несовершенств действующих законов для поддержки наших земляков.

Для того, чтобы добиться скорейшего решения наших насущных проблем сахалинская делегация встретилась с влиятельным и авторитетным депутатом Национальной Ассамбле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Ли Мен Су, который много занимается вопросам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 встрече были обсуждены конкретные инициативы и меры для привлечения большего внимания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и гражданского общества Кореи к необходимости разрешения проблем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 встречах с Красным Крестом Кореи и Корейским международным зд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м медицинским фондом члены делегации выразили благодарность



Встреча с сотрудникам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зд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фонда РК

этим организациям за реализацию крайне важных программ поддержк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 обсудили планы и формат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будущем.

Особо хочется поблагодарить Всекорейскую ассоциацию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 лично ее председателя Квон Ген Сека, которые организовали встречу сахалинской делегации с активом организации в г. Ансане. Встреча прошла в очень теплой и дружественной атмосфере. Обсудили самые насущные вопросы нашей диаспоры. И, что самое главное, наши земляки в Корею полностью поддержали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инициативы, отраженные в совместном обращении от 3 июня 2023 г.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ой Международной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роблем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ерспективы решения» (текст Обращения опубликован в газете «Сэ коре синмун» в номере от 16 июня 2023 г.).

Члены делегации пришли к единодушному мнению, что все проведенные в Корею встречи прошли эффективно, и сделаны значительные шаги вперед в деле решения насущных проблем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м уровне.

Выражаем благодарность за помощь в организации поездк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ой город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едседатель Цой Ен Гу),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 Ханин» (Председатель Чон Ен Гон), Всекорей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едседатель Квон Ген Сек).

Пак Александр, г. Москва

КНДР возобновила пассажирское авиасообщение с другими странами

После более чем трех с половиной лет самоизоляции, вызванной пандемией COVID-19,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возобновила регулярное авиасообщение с зарубежными странами - пока с Китаем и Россией. Это позволило вернуться на родину гражданам Страны чучхе, которые несколько лет вынуждены были находиться за рубежом.

Во вторник 22 августа в начале десятого утра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аэропорту Пекина "Шоуду" приземлился лайнер Ту-204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авиакомпании Air Koryu из Пхеньяна. Примерно через полтора часа этот же самолет, забрав на борт пассажиров, улетел обратно в международный аэропорт Пхеньяна Сунан.

За прибытием, регистрацией пассажиров и посадкой на рейс наблюдало достаточно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журналистов, которые в основном безуспешно пытались разговорить тех, кто либо прилетел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либо, наоборот, направлялся в Пхеньян.

Такое внимание репортеров конкретно к данному рейсу было объяснимо. В предыдущий раз такой же самолет прибыл из КНДР более трех с половиной лет назад - в январе 2020 года. Затем, в связи со вспышкой коронавируса в Китае, Страна чучхе ввела жесткий режим самоизоляции, прекратив практически любое пассажирское, а затем и грузовое сообщение с внешним миром. На тот момент такие меры казались чрезмерными и вызвали поначалу массу иронических замечаний, но со временем весь мир в той или иной степени последовал примеру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ведя собственные ограничения.

КНДР осталась верной себе и дольше всех соблюдала строгие правила, возобновив регулярное пассажирское авиасообщение лишь сейчас, что и спровоцировало ажиотаж среди иностранных журналистов. Не особо преуспевающие в общении с северокорейцами репортеры смогли выудить кое-какую информацию от источников, близких к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авиакомпани-

нии. Те сообщили, что рейс JS151 из Пхеньяна, если и привез кого-то, то совсем немного людей, а основное внимание было обращено на обеспечении возвращения северян, которые после ограничений застряли за границей.

Кстати, такая судьба постигла даже бывшего посла КНДР в Пекине Чи Чжэ Рёна. Срок его полномочий закончился еще в 2021 году, китайцы даже пустили его замену в Пекин, но вот власти самой КНДР даже для собственного посла не сделали исключения, а потому он все это время жил в столице Поднебесной. Предположительно сегодня он-таки вернулся на родину.

Южнокорейское информгентство "Ёнхап", чь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нимательно наблюдали за происходящим в аэропорту Пекина, отметило, что большинств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вшихся на рейс составили молодые люди в возрасте от 20 до 40 лет, но были люди и постарше - от 40 до 60 лет.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в Китае находится 300-400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студентов, которые в свое время не успели вернуться на родину после введения антиковидных ограничений. Ожидается, что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борт Air Koryu доставит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всех тех, кто не смог попасть в нее после января 2020 г.

Отметим, что КНДР возобновила пассажирское авиасообщение и с Россией. Согласно сообщениям СМИ, 25 и 28 августа будут два рейса из Пхеньяна во Владивосток и обратно. Ранее стало известно, что из КНДР в китайский город Даньдун на поезде прибыла групп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атлетов, которые добрались до Пекина и вылетели в Казахстан для участия в чемпионате мира по тхэквондо. Получается, что КНДР возобновила пассажирское сообщение как по воздуху, так и по суше. Правда пока остается открытым вопрос, когда страна начнет принимать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Насколько известно, пока в КНДР заезжают лишь сами граждане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либо иностранные дипломаты.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Ф)

Инструменты господдержки помогают Сахалину привлекать частные инвестиции

Корпорация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рктики (КРДВ) приняла участие в обсуждении основ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реализации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потенциала Сахалина, инициаторами которого выступили Россельхозбанк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числе наиболее перспектив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участники выделили развитие марикультуры и разведение форели, производство кормового белка, органических и минеральных удобрений, средств защиты растений, выращивание цветов и семеноводство.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обладает значительным инвестиционным потенциалом благодаря планомерной работ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его природным богатствам и расположению на пересечении морских и авиационных маршрутов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С 2007 года Россельхозбанк вложил в экономику региона 35,4 млрд рублей, в том числе 23,4 млрд рублей в сельское хозяйство и рыбохозяйственный комплекс. Мы поддержали 35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которые, в частности, дают Сахалину 4 тыс. тонн молока и 10 тыс. тонн переработанных рыбо- и морепродуктов. Банк готов рассматривать проекты,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пример, на производство органических удобрений и средств защиты растений, развитие семеноводства и рыбохозяйств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который особенно интересен для нас», – отметила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ления Россельхозбанка Ирина Жачкина.

Так, в июне текущего года Россельхозбанк объявил о разработке стратегии поддержки рыбохозяйств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В фокусе внимания закладка 30 крабовых судов и 30 иных объектов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включая заводы по переработке рыбы. В результате реализации комплексной программы поддержки кредитный портфель Россельхозбанка в РКХ по итогам 2025 года увеличится в 3,3 раза.

Сахалин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и финансово-кредит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уже реализуют ряд проектов по поддержке крупного, среднего и малого бизнеса. В условиях ужесточения антироссийских санкций ряд предприятий сельского и рыбного хозяйства, пищев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оперативно получили льготные кредиты.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тметил высокий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потенциал региона и его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ь.

«Реализация проектов, которые направлены на развитие рыбохозяйственного и агропромышл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ов, создание импортозамещающих производств обеспечиваю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поступления в бюджет, поэтому мы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в привлечении инвесторов. Это дает огром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не только для создания новых рабочих мест, но увеличения экспортного потенциала и обеспечения не только жителей островов, но и населения нашей страны собственной продукцией, в том числе деликатесными и полезными дарами моря. Поэтому мы будем поддерживать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которые инвестируют в развитие глубокой переработки продукции и расширение экспорта», – сказа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Как отметил руководитель направления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департамента КРДВ Абдуразак Разаков, Сахалин – важнейшая часть территори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 огромным потенциалом развития агропромышл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и рыб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отрасли. Здесь созданы и успешно работают сразу несколько мер и инструментов господдержки бизнеса, чтобы улучшить финансово-экономическую модель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воплощаемых на территории островов.

«У нас есть ряд эффективн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 от налоговых льгот до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земли и обеспечени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ой, которые действуют в рамках преференциальных режимов территорий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свободного порта Владивосток. Самые выгодные условия ведения бизнеса в России предлагает закон об особых условия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на Курил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оддержка позволяет инвесторам реализовывать проекты в различных отраслях, в том числе импортозамещающие. Они создают важные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е площадки, которые дают новый импульс развитию экономики региона», – подчеркну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КРДВ.

По словам Ирины Жачкиной, банк готов инвестировать с производителями на условиях возвратности инвестиций, высокой рентабельности и эффективности бизнеса.

«Новые проекты – это рабочие места и налоги в бюджет. Они должны работать на экономику региона и благосостояние людей», – подчеркнула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ления.

По данным КРДВ,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действуют три ТОР – «Горный воздух», «Южная» и «Курилы», свободный порт Владивосток и преференциальный режим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РФ. Инвестицион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ведут свыше 120 резидентов, из них более 30 успешно реализовали свои инвестиционные проекты в различных сферах экономики: сельское хозяйство и животноводство, туризм, логистика и транспорт, добыча полезных ископаемых, сфера услуг. Бизнес вложил в экономику региона около 64 млрд рублей, создал более 5,2 тыс. рабочих мест.

25 жительниц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прошли курс военно-спортивной подготовки

Занятия по военно-спортивной подготовке проходят в муниципальном образовании в рамках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Будь готов!». В этот раз в тренировке на специально оборудованном полигон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ьницы прекрасного пола. В течение недели островитянки учились оказывать первую медицинскую помощь, проходить полосу препятствий, обращаться с оружием и действовать в экстренных ситуациях. Сертификаты об окончании курсов сахалинкам вручил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главы региона Сергей Байдаков.

– Хочется поздравить вас с окончанием подготовки. Не сомневаюсь, эта неделя была насыщенной и познавательной. Навыки и знания, полученные здесь, пригодятся в самых разных жизненных обстоятельствах – вы сможете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оказать помощь пострадавшему, сориентироваться на местности, правильно среагировать на экстренную ситуацию, – обратился к собравшимся Сергей Байдаков.

В состав команды вошли 25 сахалинок, в числе которых – воспитатели детских садов, работник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журналисты 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сотрудники районн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в том числе мэр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Светлана Швеца.

В течение семи дней представительницы прекрасного пола обучались навыкам управления беспилотных летательных аппаратов, оказанию первой помощи в полевых условиях, тактическим действиям и стрельбе из автомата Калашникова.

– Это очень важно, интересно и познавательно. Конечно, было тяжело. Физическая подготовка у нас не у всех на высшем уровне. Зато мы поняли, что нужно заниматься спортом почаще. Больше всего мне понравилась тактическая медицина. Я точно знаю, что эти навыки могу применить в мирное время. Это очень важно, – сказала сахалинка. – Все это время я вела блог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Показывала все, что проходила здесь. Подписчикам это понравилось. Активно спрашивают, как записаться на курсы.

За время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Будь готов!» в городском округе прошли обучение три мужские группы и одна женская. Всего – 100 человек.

– Я пошла в первую группу, чтобы на деле проверить организацию процесса. Я вижу все достоинства и недостатки организации проекта в нашем муниципальном образовании. Мы планируем отладить этот процесс, чтобы проект был не просто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м, но и комфортным для его участников. А между тем, приглашаем всех желающих обучиться навыкам военно-спортивной подготовки и жизни в полевых условиях, – рассказала мэр Ани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Светлана Швеца.

Записаться в число тех, кто хоче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сборах, можно через социальные сети мэра Анивского округа и через администрацию района по номерам телефонов: 8 (42441) 4-02-93; 8 (42441) 4-10-34.

Отметим, идея возрождения подобного обучения родилась в ветеранских и патриоти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ях,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к проекту проявили и просто жители области, договорившись с военными и районными властями о ее реализации.

Планируется, что до конца года курс военно-спортивной подготовки пройдут 8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из всех районов области. Чтобы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проекту, необходимо обратиться в администрацию своего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 приемной главы направят к ответственному специалисту. Обучение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проводится абсолютно бесплатно.

В здан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крылась фотовыставка, посвященная Игорю Фархутдинову

В холле первого этажа здани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ткрылась фотовыставка «И.П. Фархутдинов. Всегда в работе. Всегда с людьми...». В экспозиции представлены известные и редкие снимки, иллюстрирующие работу и личную жизнь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деятеля, внесшего большо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Проект, реализованный по инициативе региональных властей, приурочен к 20-летию со дня трагической гибели Игоря Фархутдинова. 20 августа 2003 года на Камчатке разбился вертолет, летевший на остров Парамушир. Погибли три члена экипажа, а также направлявшиеся в служебную командировку 16 сотруднико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о главе с губернатором. Событие потрясло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Игорь Фархутдинов возглавил регион в середине 90-х годов. Это было очень сложное время. Закрывались производства. Люди оставались без работы. А работающие зачастую подолгу не получали зарплату. Решению всех этих проблем тогдашний сахалинский губернатор уделял огромное количество времени и сил, заслужив уважение земляков. При этом Игорь Фархутдинов сделал многое для реализации крупных проектов по освоению запасов нефти и газа на шельфе Сахалина. Они стали фундаментом для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экономики и социальной сферы области.

– О заслугах Игоря Павловича должны знать не только те, кто с ним работал, не только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тар-

ше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Наша молодежь должна равняться на этого руководителя, человека с большой буквы, – сказала министр культур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онна Лаврик.

Снимки из фондов региональ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и исторического архи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которыми могут ознакомиться посетители выставки, запечатлели важные для региональной истории события: встречи Игоря Фархутдинова с главами и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иностранных правительств, заключение соглашений в област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и культур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рабочие командировки и беседы с жителями региона. Все они в полной мере соответствуют названию экспозиции – «Всегда в работе. Всегда с людьми...».

На открытии выставки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также Валентина Ивановна, вдова Игоря Фархутдинова, и его сын Максим Игоревич.

– Сахалин,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всегда был в сердце моего отца. Это была его семья, его работа, его душа. И он остался здесь навсегда, с любовью к этому краю, – 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аксим Фархутдинов.

Фотовыставка «И.П. Фархутдинов. Всегда в работе. Всегда с людьми...» будет открыта в холле первого этажа здан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о 15 сентября.

Два 24-квартирных дома сдадут в селе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а в этом году

Квартиры в новостройках в Озерском бесплатно получат переселенцы из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Сдать четырехэтажные дома планируется до конца 2023 года.

Новоселье отпразднуют не только жители Озерского, но и соседних сел Берегового и Пихтового. Все квартиры сдадут в чистой отделке «под ключ»: со свежим ремонтом, современной сантехникой, электронными плитами и кухонными плитам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домов началось в 2021 году, но прежний подрядчик приостановил работы. Благодаря совместной работе област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строительства 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а был найден новый инвестор, который продолжил реализацию проекта.

– На объект мы заступили совсем недавно – в мае. Здесь уже стояли две, так называемые, «коробки». У одного дома были вставлены оконные блоки, на крышах был готов первый слой. На сегодня уже выполнен колоссальный объем работы. Двигаемся по графику, проблем никаких нет, – рассказал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директор компании-подрядчика ООО «СахСтройМонтажИнвест» Герман Пан.

Сегодня один из домов уже «одет» в фасад, началась чистовая отделка квартир. Параллельно строители занимаются подводом инженерн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в новостройки. Эти работы должны быть завершены к отопительному сезону. На следующей неделе приступают к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придомовой территории. Проектом предусмотрены детская игровая площадка, парковка, площадка для сбора твердых коммунальных отходов, пешеходные дорожки и асфальтобетонное покрытие проездов.

– Плановый срок ввода домов – ноябрь-декабрь этого года. В октябре планируем провести жеребьевку квартир, а затем пригласим будущих жителей, познакомим с их новыми квадратными метрами, проведем «народный контроль». Если у жильцов возникнут замечания, подрядчик их обязательно устранит. Такую традицию несколько лет назад вве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отметил вице-мэр Корсако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Николай Канищев.

Напомним,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 лидер в стране по расселению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раньше других субъектов РФ завершила предыдущую программу расселения аварийного жилфонда, которая должна была продлиться до 2025 года, и приступила к реализации новой. Результаты этой работы отмечены на самом высоком уровне – за последние три год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добрена беспрецедентная поддержка со стороны федерального центра в общем объеме 19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Расселение аварийного фонда и развитие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важнейшими приоритетами обозначил Президент Владимир Путин.

– Одна из важнейших задач, я уже много раз говорил об этом, – решить вопрос по аварийному жилью. В прошлом году были расселены граждане из трех миллионов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Это очень хороший показатель, и нужно это продолжать, – подчеркнул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в ходе совещания по вопросам развития строительной отрасли. – Объем многоквартирного жилья растёт, за первые семь месяцев текущего года введено 24 миллиона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Это плюс восемь процентов к тому, что было. Это, конечно, очень здорово.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отметил, объем строительных работ в целом по стране в 2020–2022 годах увеличился почти на 15 процентов и продолжил расти в первом полугодии этого год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с начала этого года 1900 жителей переехали из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До конца года в комфортные квартиры переедут еще 2,5 тысячи островитян.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전원 위로금 지급...특별법 추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법 초안 마련 국가 예산으로 사망·부상자 1인당 1억 지급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전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재단은 이달 중 국회와 협의해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별법 초안에 따르면 일제 강제동원 피해 사망자에게는 1인당 1억원, 부상·장해 피해자에게는 1인당 1억원 이하의 위로금을 국가 예산으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과 사할린 등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 △국의 강제동원 생환자 △미신고자 등이다.

국회에서 기존에 문화상 전 국회의장이 2019년 12월 한·일 기업과 국민(1+1+α)이 자발적으로 낸 기금으로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설립해 위자료를 지급하는 '기억·화해·미래재단 법안'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문 전 의장 법안과 달리 이번 특별법 초안은 국가예산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일본 기업 등의 책임 분담을 요구하는

야당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 특별법 초안은 또한 보상·배상 범위를 국외 피해자로 한정했던 문 전 의장안과 달리 사실상 모든 피해자로 지원 범위를 넓혔다.

재단 관계자는 "어디까지나 초안이고 국회에 올라가서 바뀔 가능성이 높은 법안"이라며 "강제동원 피해 배상에서 소송으로 이긴 이들은 극소수이고 나머지 승소하지 못한 피해자들도 보상·배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 마련은 재단 차원에서 지난 1월12일 국회 공청회에서 이들에게 약속했던 사항"이라며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는 재단으로서 피해자들의 간절함을 반영해 '이런 방법이라도 해보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12일 국회에서 외교부와 여당 주도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린 바 있다. 해당 토론회에서 일부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은 '국가가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만 신청한다'며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환경부-외교부, 카자흐스탄에 물 산업 협력단 파견

국내 8개 물 기업의 카자흐스탄 진출 확대 위한 현지 협력회의 진행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외교부(장관 박진)는 우리나라 물 산업의 해외수출 활성화를 위해 '한국-카자흐스탄 물산업 협력사업단'을 현지에 파견한다고 8월 22일 밝혔다.

이번 협력사업단에는 환경부, 외교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물산업협회가 참여하고, 민간 사업단으로 ㈜티보윈, ㈜에너토크, ㈜효립E&I, ㈜그레넥스, ㈜씨노텍, 자인테크놀로지(주), 쿠기, ㈜미시기술 등 카자흐스탄 진출을 희망하는 물 분야 8개 국내기업이 참여한다.

협력사업단은 8월 23일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양국 정부와 기업 관계자

들이 참여하는 물 산업 협력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물 산업 협력회의는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 양국의 물 협력 분야를 모색하고 국내 물 분야 기업을 카자흐스탄 발주처에 소개하는 등 국내기업의 수출·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력회의에서는 양국의 물 분야 담당자들이 자국의 물 관리 정책 및 수자원 기반 시설 현황을 소개하고, 협력사업단에 참여하는 8개 국내기업이 자사 제품군과 기술을 카자흐스탄 발주처에 소개한다.

이 협력회의에 카자흐스탄 측에서는 물 담당 정부기관인 생태천연자원부 수자원위원

회, 산업인프라개발부와 물 관리 국영기업인 카즈보드코즈 및 카자흐 투자청이 참여한다.

외교부는 이번 협력회의 전에 카자흐스탄 물 기관 담당자들과 사전면담을 진행하고 현지 요청을 반영해 수처리 기자재, 원격 제어 및 자동화 스마트 물관리 기술, 수자원 기반시설 건설 분야 등 현지 맞춤형 협력회의를 준비했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카자흐스탄은 수자원 기반시설의 발주 수요가 늘어나는 유망 국가 중 하나"라며 "양국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국내 물 산업 분야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신문)

4년 만에 전 세계 제주인 고향에 모인다

10월 6~8일 개최 '제2회 세계제주인대회' D-50

16일 조직위원회 임시총회 겸 임원회의 진행

장소 선정, 해외 도민 초청 등 일부 보완 요구

135만 국내·외 제주인들의 화합의 장인 제2회 세계제주인대회가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계제주인대회조직위원회(명예조직위원장 오영훈, 공동위원장 양문석·허능필, 이하 조직위)는 16일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제1차 임시총회 겸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회의는 제2회 세계제주인대회 추진상황 보고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2회 세계제주인대회는 오는 10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애항운동장 및 제주도 일원에서 열린다.

전 세계 제주인들이 고향에 모여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코로나19 여파로 2019년 제1회 대회 이후 4년 만이다.

'혼디모영 지꺼지게 놀게마씀'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해외 제주인 400명, 국내 제주인 500명 등을 비롯해 도민, 관광객 등 총 1만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대회 주요 프로그램은 ▲제주아일랜드 디아스포라 포럼 ▲차세대 제주인 포럼 ▲제주인 전통잔치 ▲세계제주인 친선 체육대회 ▲제주어 세계챔피언 선발대회 ▲명예제주도민 한마당 ▲제주인 전시회 ▲제주 전통문화 체험 ▲글로벌 제주제품 전시·판매 ▲마을잔치 및 마을방문 ▲홈스테이 제주 ▲보물섬 제주 탐방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조직위는 '제2회 세계제주인대회 개최 준비 TF'를 구성해 기본계획 및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대회 개최를 준비해왔다.

조직위는 다음 달까지 대회 초청 대상자 확정, 사전 참가 신청 접수, 대회 분위기 조성 홍보 및 사전 이벤트, '제주어 세계챔피언 선발대회' 도민회별 예선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제2회 세계제주인대회 착수보고회는 오는 25일, 최종보고회는 다음 달 26일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

아울러 조직위는 이번 대회 일정이 제62회 탐라문화제(10월 6일~10일)와 겹치는 것과 관련해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와 상호 협의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이날 총회·회의에서 조직위원들은 대회 장소 선정과 해외 도민 초청 등 일부 계획에 보완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석주 제주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제주도가 애항운동장 내·외부에서 취사 및 음식물 섭취를 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도민회 등에서 불편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라며 "식사뿐만 아니라 우천 시에 대체 장소 등도 필요한데 인근의 한라체육관도 1500명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 조직위가 적절한 장소 섭외와 관련해 제주도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현철 경기안산시흥제주도민회 회장은 "지난 대회 때는 출항 해녀와 사할린 등 해외 도민을 초청했었는데 이번 대회 계획을 보면 빠져 있다. 제주도가 그때는 도와주고 이번에는 도와줄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해외 동포를 적극적으로 초청하는 부분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영진 조직위 사무총장은 "현재 애항운동장과 한라체육관 등에서 식사에 어려움이 있는데 내부에 식당이 있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대안으로 마련했다. 오는 18일 예정된 제주도와의 긴급 회의에서 장소 선정과 관련해 논의하겠다"라며 "오늘 제시된 의견들을 수렴해 차질 없이 준비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뉴제주일보)

[우리말로 깨닫다]

씨 없는 이름

우리말은 변화 속도가 참으로 빠릅니다. 따라잡기가 버거울 정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영킹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변한 말을 쓰는 사람과 예전대로 사용하는 사람 사이의 영킹입니다. 특히 호칭의 변화는 놀랍습니다. 그야말로 변화무쌍(變化無雙)합니다. 양반과 상놈을 따지는 신분제 사회에서, 독재 정권의 사회, 철저한 자본주의의 사회를 거쳐서 어쨌든 걸보기에는 민주적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는 높임법을 중요시하는 한국어의 특성상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호칭이나 지칭이 그렇습니다.



▲ 조현용 (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그중에서 이름 뒤에 붙는 '씨'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요즘 신문기사를 보면 알려진 사람에게는 씨가 붙지 않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씨를 붙이는 경향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씨가 높이는 표현이었다면, 이제는 모르는 사람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범죄자에게 붙어있는 씨를 보면서 이게 민주적인가, 인권인가 하는 생각에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저런 사람도 존중해야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편 어떤 이에게 직위가 없으면 그냥 씨로 통일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물론 씨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름 + 씨'의 경우는 다른 씨에 비해서는 친근한 느낌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름에 씨를 붙이는 것은 주로 연인 사이에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성 + 씨'는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기분 나쁜 호칭은 아니었는데, 지금은 거의 낮춤으로만 쓰입니다. 직위도 직업도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합니다. '김 씨!'하고 부르는 소리를 듣는다면 어떨까요? 반대로 내가 '박 씨!'라고 부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무래도 성에 씨만 붙이면 불편한 느낌이 커졌습니다. 아마도 '김 씨, 이 씨'처럼 불러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성 + 이름 + 씨'는 객관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도 주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직도 공공기관 등에서는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현용 씨'라고 부르는 거죠. 예전에는 아주 당연한 호칭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높여 부르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씨가 점점 기분이 나빠지면서 이런 호칭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씨' 대신에 '-님'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아직도 님을 붙이는 게 어색합니다. 어색은 하지만 그런 변화라는 것을 느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말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저는 '손님'이라는 말을 좋아하지만, 저를 부르는 사람은 주로 '고객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고객(顧客)은 사실 손님이면서 단골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다지 그 가계에 고객이 아닌데, 저를 고객 취급해 주는 겁니다. 처음 갔는데 말입니다. 고마워해야 할지, 어색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이 많습니다. 손님이라는 말은 손에 '님'이 붙은 말입니다. 저는 종종 손이라는 표현만으로도 매우 좋은 느낌이 있습니다. '저 손아 마저 잠들어 혼자 울게 하여라'라는 성불사의 밤이라는 곡의 가사를 들을 때마다 손의 외로움이 느껴집니다. 손을 높인 표현이 손님인데, 말의 인플레이션이 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문을 보면 금방 씨 없는 이름들이 보일 겁니다. 정말 어떤 이름에는 씨를 붙이고, 어떤 이름에는 씨를 뺍니다. 씨만 자세하게 들여다봐도 세상의 변화를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떤 씨입니다. 어떤 씨로 불리고 어떤 씨를 부릅니까? 그럴 바에야 아예 씨를 없애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씨가 불평등의 요소가 되는 듯도 하니 말입니다.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만, 갑자기 왕후장상(王侯將相)의 씨가 따로 없다는 말이 생각나서 미소 짓게 됩니다. 씨로 인해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지 않기 바랍니다. '감히 누구한테 씨야!'라는 말도 씁습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이 모 저 모

(2편의 계속)

«Это мероприятие уже давно полюбили сахалинцам и стало для нас традиционным. В этом году "рубеж" проходит уже в восьмой раз. Такое внушительное количество участников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подтверждает, чт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 самый спортивный регион России. Это можно увидеть и воочию, и об этом говорит официальная статистика. Желаю всем удачи, преодолеть все препятствия и получить от прохождения трассы огромный заряд положительных эмоций», — напутствовал министр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ртём Подшивалов.

Спортсменам предстояло преодолеть дистанцию 5 км, на протяжении которой участников ожидали 30 препятствий различной сложности.

По итогам состязаний в личном зачете среди женщин первое место заняла Ульяна Добровольская, показав результат 41:11,3 секунд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ая спортсменка становится победительницей соревнований уже пятый год подряд.

Второе место заняла Анастасия Вандышева (44:38,4). Тройку лидеров замкнула Дарья Касима (46:38,6).

Среди мужчин лучший результат показал Юрий Лагун (30:52,3). Вторым финишировал Ильяс Нургалиев (31:31,3). Михаил Аникиев (31:52,9) занял почетное третье место.

В командном зачете самыми быстрыми стали спортсмены «Pride Team» (43:30,0).

«Выхожу на старт "Сахалинского рубежа" с 2016 года. Сложностей с порождением дистанции у нас не было. Трасса за это время, конечно же, изменилась, стала более беговой и значительно интересней», — отметил лидер команды Александр Квак.

Второе место заняли «Мыши рокеры с Марса» (45:57,3). Третьей стала команда «Не с этой планеты» (49:40,3).

보이스 피싱범들, 사할린 여성들 속여 3백만 루블리 갈취

협잡꾼들이 사할린주 주민 2명의 여성에게서 총 3백2만2천 루블리를 대출을 받도록 했다고 러시아 사할린주 내무국

이 소식을 전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의 68세 여성 주민은 국가 서비스 기관 직원으로 사칭한 익명의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누군가 이 여성의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그리고는 그의 지시를 따라 하면 대출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피해 여성은 그의 지시를 따라 200만 루블리를 대출을 받아 제시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말았다. 또한 이 여성은 이 사기꾼에게 자신의 적금 24만7천 루블리도 송금했다.

홈스크의 한 여성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77만5천500루블리를 갈취당했다. 홈스크에 56세의 여성에게는 자신이 경찰기관의 직원이라 사칭한 익명의 사람이 전화해 청년이 위임장을 가지고 이 여성의 이름으로 두 건의 대출 신청을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그리고는 '안전 계좌'로 예금을 이체하라는 지시를 했다. 여성은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앱 중 하나에서 가상의 카드를 만들어 이체했다. 그리고 사기꾼의 지시에 따라 전화기에서 이 가상의 카드를 삭제했다. 이후 200만 루블리 이상 대출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가 사기꾼임을 알아챘다. 두 사건 모두 범죄사건으로 수사에 들어갔다.

Мошенники выманили у сахалинок более 3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Мошенники обманным путем заставили взять двух жительниц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редиты на общую сумму 3 022 000 рублей.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УМВД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68-летней жительниц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звонил неизвестный и, представившись сотрудни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лужбы, сообщил, что некие лица оформили на ее имя кредиты. Он убедил женщину, что задолженность можно списать, действуя по его инструкции. В итоге пострадавшая оформила кредит на сумму 2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и перевела деньги на продиктованные номера. Помимо этого, она отправила мошенникам личные накопления в сумме 247 тысяч рублей.

А у холмчанки подобным образом выманили 775 500 рублей. Неизвестный позвонил 56-летней жительнице

Холмска и, представившись сотрудником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х органов, сообщил, что некий молодой человек пытается взять на ее имя два кредита по доверенности. Он убедил пострадавшую перевести свои деньги на «безопасный счет». Женщина сняла деньги со всех своих счетов и перевела их на созданную виртуальную карту в одном из приложений. Затем она удалила эту карту из телефона по указанию звонившего. Когда он сказал, что нужно еще кредит на сумму более 2 миллионов, потерпевшая поняла, что имеет дело с мошенниками.

'러시아' 항공, 9월에 모스크바-유즈노사할린스크 노선 50회 이상 운항 예정

'러시아' 항공이 모스크바-유즈노사할린스크 노선의 항공편을 증편했다. 아에로플로트 그룹의 계열사인 '러시아' 항공사가 9월에 총 50회 이상 이 노선에서 운항할 것이라고 전했다.

증편은 9월 8일부터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이뤄진다. 항공사 측은 높은 수요로 인해 추가 증편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항공편은 고정운임과 보조금 요금표를 참고해 '러시아' 웹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다. 모든 항공편은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새로운 공항터미널에서 운항하게 된다.

«Россия» в сентябре выполнит более 50 рейсов по маршруту Москва — Южно-Сахалинск

Авиакомпания «Россия» ввела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рейсы по маршруту Москва — Южно-Сахалинск. Всего в сентябре перевозчик, входящий в группу Аэрофлот, совершит более 50 перелетов по этому направлению,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компании.

Они будут выполняться по пятницам и субботам с 8 сентября. В компании добавили, что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рейсы введены в связи с высоким спросом. Авиабилеты, в том числе по плоским и субсидируемым тарифам, можно приобрести на сайте «России». Все полеты осуществляются из нового аэровокзал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01 руб. 00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본사 편집부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ак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야</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